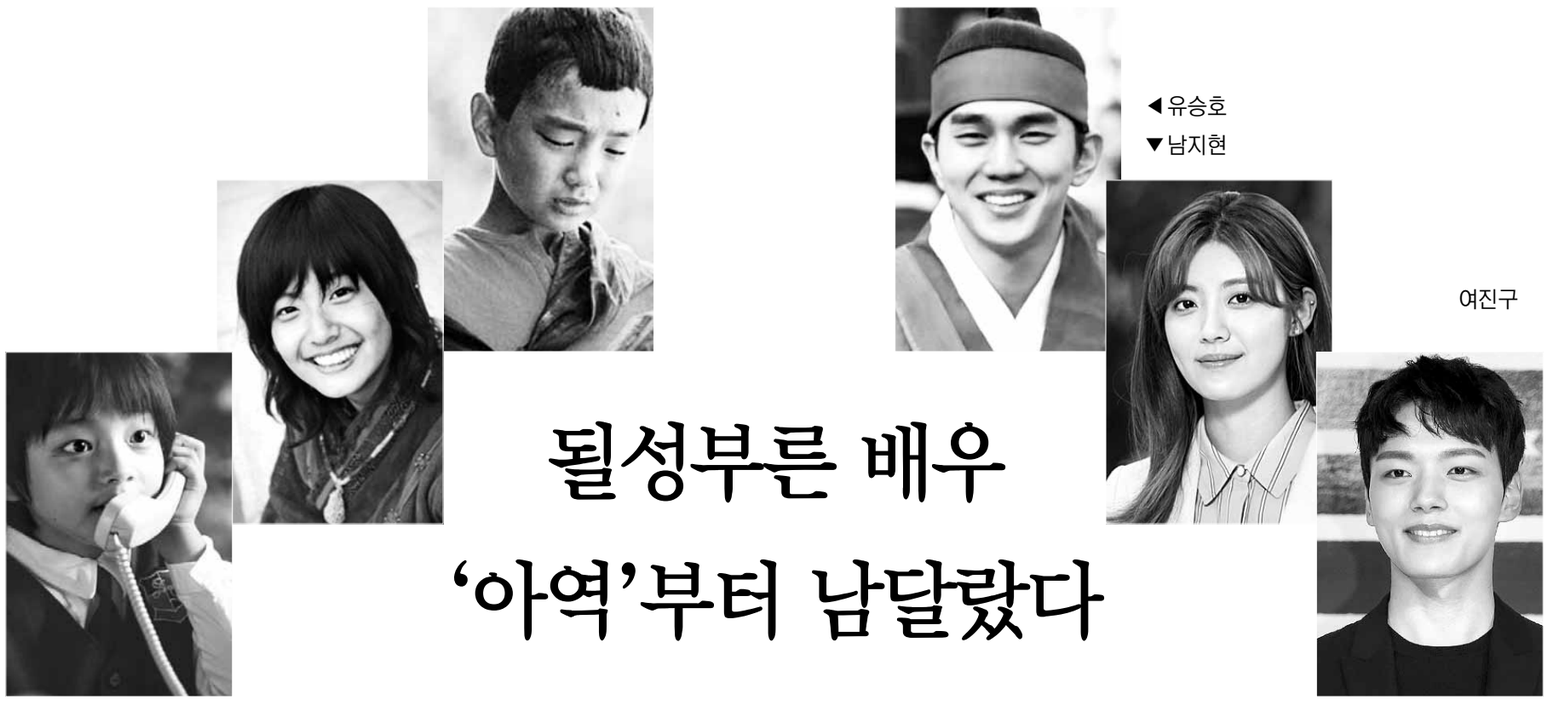

될성부른 배우 '아역'부터 남달랐다

유승호·여진구·남지현·고아성 등 탄탄한 내공으로 20대 기근 메워

될성부른 나무였기에 떡잎부터 알아봤다. 그래도 새삼 감탄이 터져나온다.

아역 출신 배우들이 어느새 잘 자라 TV 프라임타임 드라마의 주인공을 나란히 차지하며 무시 못 할 '내공'을 과시하고 있다. MBC TV 수목극 '군주 - 가면의 주인공'의 유승호(24), SBS TV 수목극 '수상한 파트너'의 남지현(22), tvN 월화극 '써클:이어진 두 세계'의 여진구(20)와 최근 종영한 MBC TV '자체발광 오피스'의 고아성(25), KBS 2TV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의 이세영(25) 등이다. 20대 초반이지만 연기 경력은 모두 10년이 훌쩍 넘는 이들은 '성인' 인증을 받음과 동시에 방송가 세대 교체의 선봉에 섰다.

때마침 방송가가 20대 배우 기근을 호소하고 있어 이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

◇'무사 백동수'에 나란히 출연했던 유승호·여진구·남지현=이들 중 유승호, 여진구, 남지현은 2011년 SBS TV '무사 백동수'에 나란히 출연하기도 했다.

여진구와 남지현은 각각 지창욱과 신현빈의 아역을 맡았고, 당시 18세였던 유승호는 살수 집단의 비밀 병기를 맡아 성인 배역 대열에 들어섰다.

그로부터 6년이 흐른 현재 이들 셋은 방송사가 심혈을 기울이는 미니시리즈의 주인공이 됐다.

군대까지 일찌감치 다녀온 유승호는 2015년 시청률 20%를 넘긴 '리멤버-아들의 전쟁'의 타이틀 롤을 맡아 성공적으로 성인 연기자 신고식을 치렀다.

여진구는 '오렌지 마말레이드'(2015)와 '대박'(2016)을 거쳐 만 스무살이 된 올해 '써클'을 통해 외모에서도 젖살이 빠진 달라진 모습으로 승부하고 있다.

'가족끼리 왜이래'(2014)로 성인 연기 워밍업을 한 남지현은 '쇼핑왕 루이'(2016)로 맛본 로맨틱 코미디의 성공을 '수상한 파트너'에서 재현하고자 한다.

◇4세에 데뷔해 영화에서 먼저 뜬 스물다섯 고아성·이세영=스물다섯 동갑내기 고아성과 이세영은 나란히 네 살 때 연예계에 데뷔해 영화에서 먼저 떴다는 공통점이 있다.

고아성은 4세때 CF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연기는 2004년 어린이 드라마 '울라불라 블루짱'으로 시작했지만, 2006년 봉준호 감독의 '괴물'을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그는 봉준호가 사랑하는 연기자로 '설국열차'에도 발탁되는 등 TV보다 영화에서 주가를 날렸다.

이세영은 4세때 MBC '뽀뽀뽀'에 출연하면서 데뷔했다. 연기도 같은 1996년 드라마 '형제의 강'으로 시작했지만, 2004년 영화 '아홉살 인생'의 주인공을 맡으면서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여선생 VS 여제자' '열세살, 수아' 등을 통해 영화에서 인기 아역 배우로 이름을 날렸다.

고아성은 주로 영화에 출연하다가 2015년 성인연기자가 돼 '풍문으로 들었소'로 TV에 다시 돌아왔고, 지난 4일 막을 내린 '자체발광 오피스'에서는 여주인공을 맡아 호평을 받았다.

이세영은 지난 2월 막을 내린 50부작 주말극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20대 청춘의 발랄한 로맨스를 사랑스럽게 그리며 성인연기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 다음달 2일 시작하는 KBS 2TV 금토 드라마 '최고의 한방'의 여주인공으로 발탁됐다.

◇"검증된 연기력으로 20대 배우 공백 메워"=이제 갓 젖살이 빠지는 '파릇파릇'한 20대 초반의 배우들이지만, 이들의 구력은 단단하다. 초등학생일 때 혹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연기를 시작한 이들의 연기경력은 최소 12~13년에서 21년까지 만만치 않다.

남지현은 '에덴의 동쪽' '선덕여왕' '자이언트'를 통해 똘망똘망한 소녀 연기로 내리 히트를 쳤고, 여진구는 '태양을 삼켜라' '자이언트' '뿌리깊은 나무' '해를 품은 달' '보고싶다'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유승호는 아홉살 때 출연한 영화 '집으로' 한편만으로도 족할 만큼 어린 시절부터 특급 대우를 받았다.

과거에는 아역 출신 배우들이 성인 연기자로 전환하는데 실패하거나, 아역 때만큼의 인기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들이 검증된 연기력을 바탕으로 20대 배우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성효 KBS드라마 센터장은 24일 "예전에는 아역 출신 배우들이 연기력은 있지만 너무 어려서부터 연기를 하다보니 정작 성인이 되면 배우로서 신선도가 떨어져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한마디로 참신성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정 센터장은 "그러나 최근에는 아이돌 출신 연기자들이 많이 나오다보니 그들과 비교했을 때 아역 출신들의 연기력이 훨씬 좋은 게 보이고, 또 때마침 20대 배우 기근이라 연기력이 검증된 아역 출신들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간다"고 해석했다.

그는 "요즘 발탁되는 아역 출신 배우들은 성장기 어느 단계에서 한번씩은 공백을 가진 배우들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그래서 성인 연기자로 등장했을 때 대중에게 재발견되는 지점이 있다"고도 했다. /연합뉴스

서정희 "나를 다 내려놓고 촬영"

SBS '불타는 청춘' 합류…시청률 8.5%

방송인 서정희가 SBS TV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 본격적으로 합류했다.

서정희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은 2015년 개그맨 서세원과 이혼한 후 처음이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불타는 청춘'의 평균 시청률은 전국 8.5%, 수도권 9%로 집계됐다. 지난 16일 방송의 전국 평균 시청률은 7.3%였다.

전날 방송에서 서정희는 57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동안을 과시했다.

그는 또 멤버들에게 근사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다며 냄비 그릇 등 생활용품을 4개의 트렁크와 가방에 싸와 웃음을 주기도 했다.

서정희는 "나이는 먹었지만, 단체생활을 별로 안 해봤다. 사람들과 소통도 안 해봤다"며 "나는 내려놓은 거다. 그러니까 온 것"이라고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다.

'불타는 청춘'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 /연합뉴스

'비인두암' 진단 김우빈 "치료에 전념"

차기작 '도청' 측 "크랭크인 연기"

배우 김우빈이 비인두암 판정을 받고 치료에 돌입했다.

김우빈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24일 "김우빈이 최근 여러 스케줄을 소화하던 중 몸이 이상을 느껴 병원에 방문했고 비인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인두암은 인두의 가장 윗부분에 생긴 악성 종양이다.

소속사는 "다행히 발견이 늦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따라 현재 약물치료와 방사선치료를 시작했다"며 "치료에 전념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뵐 때까지 빠른 쾌유를 빌어달라"고 당부했다.

김우빈은 최근 이정재 등이 출연하는 영화 '도청' 출연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예정된 스케줄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다큐에세이, 여기 이 사람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아임 쏘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중계방송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10 좋은아침
10	00 중계방송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40 지구촌 뉴스		00 중계방송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11		00 일일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재)		
12	00 KBS 뉴스 12	50 1대 100(재)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군주〉(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험설계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5 감성툰 고맙습니다(재)	50 KBS 재난방송센터	30 리얼스토리 눈 55 중계방송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55 닥터 365
2	00 중계방송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중계방송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별예선 〈프랑스 : 베트남〉	00 MBC 뉴스M 50 MBC 스포츠 2017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에콰도르 : 사우디〉	00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날씨와 생활 1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00 2TV 생생정보 50 일일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	15 일일연속극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5 닥터 365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속보이는TV 인사이드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KBS 스페셜-고령화 기획 2부작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	00 수목드라마 〈군주〉	00 드라마 스페셜 〈수상한 파트너〉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2부작 나눔, 세상을 바꾸다	10 500회 기획 해피 투게더	10 테마기행 길 스페셜 〈양림동 편〉	10 자기야 - 백년손님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빛날 스페셜 50 MBC 뉴스 24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
〈남여상열지사〉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윙스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30 뚝딱맨
08:4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09:15 엄마 까투리(재)
09:30 몰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치킨 가라아게와 바싹 쑥갓 튀김〉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회장님 회장님 우리 고회장님〉
12:40 지식채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큐영화 - 길 위의 인생
〈몽골종단철도, 투무르잠〉
14:30 호기심나라 오키도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키 탐험대
15:20 마샤와 곰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재)
17:30 로보카 폴리
17:45 뚝딱맨(재)
18:00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1~4
19:00 놀자고(재)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위대한 개춘기, 산책거부견 골든이〉
20:50 세계테마기행
〈세상의 모든 시간 터키 4부 흑해의 알프스 폰투스〉
21:30 한국기행
〈금쪽같은 내 사랑 4부 금이야 옥이야〉
21:50 과학 다큐 비욘드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금쪽같은 내 새끼랑
24:05 지식채널e
24:10 스페이스 공감 1, 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5일(음 4월 30일 壬子)

子 48년생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겠다. 60년생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드러날 수 있다. 72년생 예상했던 대로 전개되는 형국이다. 84년생 사소하다고 여기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 하자. 행운의 숫자 : 37, 22

丑 49년생 정성을 다 해왔다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61년생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차 실마리를 찾게 된다. 73년생 방치한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85년생 지나친 낙관은 빈틈을 보이기에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94, 77

寅 50년생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느니라. 62년생 하나가 이뤄지면 연쇄적인 효과를 보겠다. 74년생 제반사를 실리 위주로 바라보고 조응해야 한다. 86년생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80, 86

卯 51년생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와 그 반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63년생 체면 때문에 참아야만 하는 고통이 지대하다. 75년생 쉽게 파악할 수 있다. 87년생 큰 문제는 없으나 획기적인 진전도 보이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11, 27

辰 52년생 실제로 드러나는 판국과 사뭇 다를 것이니 액면 그대로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64년생 순리대로 행하면 형통하리라. 76년생 남을 의식할 필요 없다. 88년생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수용하고 보자. 행운의 숫자 : 66, 08

巳 53년생 으뜸의 것으로 기준을 삼을 필요가 있다. 65년생 장기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77년생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이를 만나게 되리라. 89년생 급하게 뛰어다녀야 할 일들이 많아서 정신없겠다. 행운의 숫자 : 88, 47

午 42년생 고통의 끝은 지극히 달콤할 것이다. 54년생 비슷한 수준으로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66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이익이다. 78년생 빈틈이 보인다. 90년생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81, 57

未 43년생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55년생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67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미를 찾게 된다. 79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91년생 폭발적인 성장 동력이 발생하리라. 행운의 숫자 : 70, 32

申 44년생 깔끔하게 보완한다면 완전히 구도가 달라지리라. 56년생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무난하리라. 68년생 숙명적이라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80년생 뜬구름 잡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행운의 숫자 : 10, 27

酉 45년생 징후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57년생 어쩔 수 없이 어울려야만 하는 고통이 있다. 69년생 상응하는 흐름에 내맡긴다면 무리 없이 성취한다. 81년생 숨은 뜻까지 파악할 수 있는 혜안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92, 75

戌 46년생 상대의 입장과 체면을 고려해 주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볼 수 있다. 58년생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이루어진다. 70년생 기대했던 바는 들어오게 되어 있다. 82년생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4, 76

亥 47년생 어중간하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할 수다. 59년생 지속적인 노력만이 목적을 달성케 할 것이니라. 71년생 소모적이라면 한시 바삐 선회하라. 83년생 아직 설익었으니 입이 즐겁지 못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8, 4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